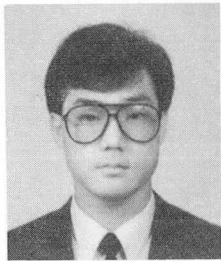




규모에 따른 벌크 사료와 포대사료 이용의 장·단점



손 훈 남
(신촌사료 양돈P.M)

“
농장의 인력난 심화 및 양돈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가 절실히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벌크사료로의 이용은
어찌면 당연할런지도 모른다.
”

1. 개요

국내의 사료 공급형태는 크게 포대사료, 벌크사료, 그리고 타이콘 백(C/B)으로 운송하는 세가지 경우가 있으며, 자가배합사료 농장의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다.

이중 가장 많이 소비되는 형태는 포대사료이며 다음이 벌크사료로 그 비율은 대략 7:3 정도이다.

농장에서 사료를 어떠한 형태로 공급받던지 간에 가축이

섭취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큰 차이는 없다. 그렇지만 농장의 규모, 사양 및 시설, 환경 등에 따라 사료 이용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고, 아울러 사료의 선택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개략적이거나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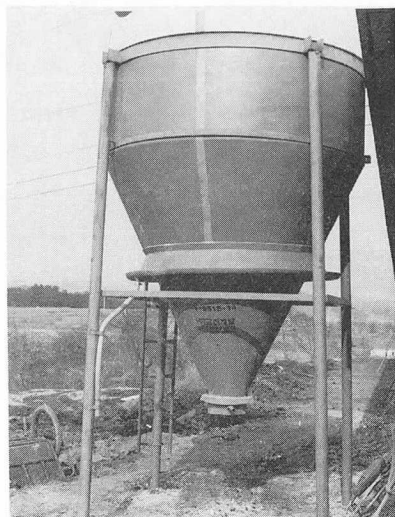
2. 벌크사료 이용시의 장점

가. 운송이 용이하다
포대사료에 비해 가격이 저

렴할 뿐 아니라, 펠릿(pellet)사료의 경우 운송 도중에 발생하는 가루 발생률이 더 적어 상대적으로 품질개선 효과가 있고 대부분 사료 생산 직후 공급되므로 운송시간이 단축되고 가축에게 더 신선한 사료를 급여할 수 있다.

나. 노동력 절감 효과가 크다

다두사육을 하는 전업농가에게 특히 유리하다. 가축에게 사료를 급여하는 시간이 단축되



고 상·하차시 드는 노동력의 감소뿐 아니라, 현재의 인력난 및 고임금의 상황하에서는 인건비 및 인력 관리면에서 상대적인 경비의 절약 효과가 크다.

다. 사료 보관이 용이하다

사료 보관 창고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협소한 면적이라도 포대사료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사료의 재고관리 및 사료 보관 자체가 훨씬 용이하다.

라. 사료 오염 및 손실 방지에 유리하다

설치류 및 기타 가축으로부터의 사료의 손실 및 피해를 방지할 뿐 아니라, 사료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포대사료에 비해서는 훨씬 위생적이다.

마. 품질 개선 효과가 있다
미량 또는 극소량의 영양소 또는 첨가제가 배합이 덜 되었다더라도 상차 및 공급, 급여 과정에서 재차 배합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상대적인 품질개선 효과가 있다.

3. 벌크 사료 이용시의 불리한 점

가. 시설비가 많이 든다

초기 시설 투자비 및 보수, 수리비 등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많고, 자동화 시설의 초기 시설 투자비가 상당액 소요된다.

나. 가축에 대한 관찰 횟수가 줄어 들 수 있다

포대사료를 급여한 경우에 비해 개별 가축에 대한 관찰횟수가 적어지므로 질병 감염 등

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조치가 미흡할 수 있다. 또, 무제한 급이하는 경우, 급이기 내부에 오래된 사료의 효율적 제거가 미흡하여 사료효율 저하 및 성장을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다. 품질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가축두수가 적은 경우(월 25~30톤 미만 소요) 벌크 빈(BULK BIN)에서 사료의 저장기간이 오래될 수 있으므로 부패 및 변질, 품질의 저하가 발생될 수 있다. 사료의 소요기간이 길수록 사료 변이의 폭도 커지므로 가축에게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수 있다.

라. 사료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액상 원료가 다량 배합된 사

료, 특별한 오염물질(중독성 물질 포함)이 함유된 사료의 경우 빈(BIN) 벽에 소량 잔류할 수 있으며, 동절기의 경우 빈 외부의 온도저하로 빈 내부에 가꿈덩어리진 사료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료의 물리적 특성을 잘 관찰하여야만 한다.

마. 재처리가 쉽지 않다

빈 내부에 들어 있는 사료에 이상이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가축 출하 후 잔량이 남아 있는 경우에 교환 또는 반품(返品) 등의 재처리가 쉽지 않다.

4. 사료 선택시 고려해야 할 사항

가. 목적에 부합한 사료를 선택해야 한다

가축의 성장 단계, 용도 등에 적합한 사료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일례로 자돈용 사료를 육성돈 및 비육돈 등에 급여하는 것은 결코 경제적이지 못하다.

나. 사료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육안 및 감각등으로 사료의 외관상 물리적 특성을 관찰하고 급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료 교체시 형태상 유사하고 맛이나 향이 비슷할 수록 좋다.

다. 신선한 사료를 선택해야 한다

제조일이 오래 될 수록 각종 영양소의 파괴 및 변질이 용이하므로 사료의 소요량을 계산하여 가급적 농장에서 오래 보관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제조일을 확인하고 급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농장의 특성에 맞는 사료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 품종, 성별(SEX), 거세 여부, 개량 정도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성장률 및 영양소 요구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며, 동일한 사료라도 사양 농장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되므로 자신의 농장 특성에 맞는 사료를 선택하여 급여하는 것이 좋다.

마. 기록은 좋은 사료 선택에 도움을 준다

사료 사용 내역, 비용, 결과 등을 정리 기록하여 다음 사료 구매시 보조자료로 활용한다면, 농장의 비용 절감 및 사료 선택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5. 맺음말

벌크사료 이용시의 장·단점을 살펴봄으로써 포대사료 이용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

지만, 그 농장의 여러 사정에 따라 그러한 사유들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로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비록 전업농가가 아니더라도 월 30톤 이상의 사료를 소요하는 농장이라면 (대략 모돈 40두 이상 보유 농장) 벌크사료 이용시 몇 가지 불리한 점에도 불구하고 포대사료 이용에 비해 훨씬 경제적이다.

특히 농장의 인력난 심화 및 양돈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가 절실히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벌크사료로의 이용은 어쩌면 당연할런지도 모른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벌크사료와 포대사료의 이용 비율이 대략 7:3정도(91년)되는 데, 이는 그만큼 전문화 되고 전업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도 거세게 몰아치는 외국 축산물에 대응하고 심화되는 농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벌크사료의 이용률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져야 함은 자명한 이치이다. 